

현장이야기 · 천안장로교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교회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을 꿈꾼다. 그리스도인들도 행복을 꿈꾼다. 그러나 정작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또 그중에서도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 우리 자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왜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정신 없이 살다 보니 이런 것을 고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기복신앙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행복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한 목회자가 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한 목회자가 있다. 바로 천안장로교회 김철수 목사이다.

김 목사는 성도들이 행복한 목회를 꿈꿨다. 그리고 성도가 행복한 목회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랜 시간을 고민했다. 그리고 그는 그 답을 찾았다. 바로 제자훈련이었다. 성도가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누구보다 목회자 자신이 행복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목회자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말했다. 제자훈련 목회를 통해 '너무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행복한 목사가 만들어가는 행복한 성도의 이야기를 이번 호에 소개하려 한다.

행복한 목사

김철수 목사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꿈을 꾸며 자랐다고 한다. 김 목사는 모(母)교회였던 마포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담임목사님을 보며 목회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했다. 이후 김 목사는 목회자가 되어 신반포교회, 서현교회, 사랑의교회에서 각각 6년씩 사역을 했고, 지금은 천안장로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하고 있다.

김 목사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한 이후로 '성도들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미성숙한 신앙에 있음을 발견



김철수 목사는 연세대 신학과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Th. M.) 그리고 총신신대원을 졸업했다. 현재 천안장로교회 담임목사, 충청 CAL-NET 총무로 섬기고 있다.



사실 많은 교회가 세대교체 후에 원로목사와 후임목사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힘들어한다. 그러나 천안장로교회는 두 사람의 관계가 좋기에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했다. 한마디로 행복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을 훈련시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김 목사가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 고민하게 된 이유이다.

그는 제자훈련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성도를 행복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훈련 목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당시 김 목사는 제자훈련을 하지 않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현장에서의 필요를 느끼고 성도들과 함께 2년간 독학하며 제자훈련을 했다. 그러면서 더욱 제자훈련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다. 제자훈련을 제대로 배워 훈련시키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난 것이다.

그 후 김 목사는 소망대로 제자훈련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사랑의교회에 부임하게 되어 제자훈련에 대해 마음껏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김 목사는 사랑의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오랜 시간 고민했던 부분인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한다. 바로 제자훈련 목회였다.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확신을 가지게 된 김 목사도 너무나 행복했다고 한다.

목회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자인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자이다. 김 목사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자인지를 잘 알고 있는 목회자이다. 이것은 제자훈련을 하는 목회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마음이다. 목회자의 행복은 하나님의 기쁨과 성도의 행복에 있는 것임을 김 목사를 통해 배울 수 있다.

행복한 세대교체

사랑의교회에서 6년의 사역을 마친 김철수 목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2009년 9월 천안장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김 목사는 사랑의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 그의 마음에는 오직 제자훈련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다고 한다.

당시 천안장로교회는 후임목사를 결정해야 할 시기였다. 그런데 천안장로교회는 김 목사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제자훈련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였기에 제자훈련 철학을 잘 이어갈 수 있는 후임목사를 찾고 있었다. 이것은 원로목사를 비롯한 온 성도들의 바람이었다.

결국 김 목사는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천안장로교회로 가게 되었고, 천안장로교회도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이어갈 수 있는 목회자를 찾게 된 것이다.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 교회의 리더십 교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새롭게 세워진 담임목사가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랜 기간 제자훈련 사역을 해 오던 교회일지라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점에서 천안장로교회의 리더십 교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이루어진 경우다.

이것은 단지 제자훈련 하는 교회가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진 후임목사를 세웠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 목사는 원로목사와도 좋은 관계에 있다. 원로목사는 김 목사가 부임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김 목사는 원로목사를 아버지처럼 극진히 모시며 존경을 표현하고 있다.

사실 많은 교회가 세대교체 후에 원로목사와 후임목사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힘들어한다. 그러나 천안장로교회는 두 사람의 관계가 좋기에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했다. 한마디로 행복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제자훈련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 있어야 할 아름다운 세대교체의 모습이다.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는 세대교체가 모범적이어야 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제자훈련 목회의 귀중한 열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천안장로교회

목회적 어려움 두 가지

천안장로교회는 현재 주일 평균 출석이 장년만 1,400명 정도로 충남 천안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충청도의 기질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처음 부임해서 충청도의 기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김 목사는 기질적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가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은 반응을 잘 보이지 않았다.

속을 쉽게 알 수가 없고 반응이 나중에 나타나 기질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 목사는 생각을 바꿨다. 이곳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 충청도의 기질을 맞추기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질로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바꿨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기질을 이해하기로 했다.

또한 천안장로교회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길목에 있기에 유동 인구가 많다. 그래서 훈련받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성도들이 많았다. 김 목사가 힘들어하는 부분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내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라는 생각으로 바꾸고, 어디에서든 그들이 소명자로 살 수 있도록 세워가고 있다.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

천안장로교회는 성도들이 제자훈련으로 잘 훈련되어 신앙의 기본기가 잘 닦여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십일조를 잘 하는 편이고, 교회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른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훈련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새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한 양육 과정을 많이 개설하고 있다. 부부성장학교 초급반과 중급반, 결혼예비학교가 있다. 그리고 별코의 조직신학을 토대로 교리반을 만들어서 진행 중이다. 교재는 자체 제작한 것으로, 교리반은 학습 반에서 4개월, 세례 반에서 4개월을 교육하고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해야지만 학습과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천안장로교회는 서리집사도 쉽게 될 수 없다. 하반기에 직분자학교 10주 과정을 운영하고, 이 과정을 수료해야지만 서리집사로 임명받을 수 있다. 성경대학은 부교역자들에 의해 따로 진행하고 있고, 큐티 세미나와 신구약 파노라마도 진행하고 있다. 선교훈련으로 천안지역의 LMTC 훈련을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수백 명의 성도들이 이 과정을 수료했다고 한다.

또한 전도 훈련을 위해 전도폭발훈련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방학 때는 목(목)요 영성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 '기드온 300용사'를 시작했다. 이는 특색의 은혜를 일상의 은혜로 가져오기 위해 새롭게 만든 기도의 장이다. 매주 금요일 새벽에 기드온 300용사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성도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가 선교를 한다. 그러나 천안장로교회는 교회가 선교하기보다 성도들이 선교를 하는 교회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 교회가 선교를 하고 성도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주축이 되어서 선교를 한다. 김 목사는 이런 선교의 마음이 훈련의 열매라고 한다. 훈련을 통해 소명자로 세워지고 선교의 마음을 심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선교사 단독 파송 9가정, 협력 교회 45교회, 13군데 협력기관에서 선

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안장로교회는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다. 김철수 목사는 사랑의교회에서 6년의 사역을 하는 동안 대각성전도집회를 담당해서 사역했다. 그래서 천안장로교회 부임 이후 정말 본질에 충실한 대각성전도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각성전도집회의 정신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이를 통해 영혼 구원과 성도들의 영적인 대각성을 위해 집중하며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방해가 되는 것은 뭐든 제거했다고 한다.

많은 교회에서 전도집회나 총동원 주일을 할 때, 선물이나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전도하려고 한다. 심지어 대각성전도집회를 하는 교회에서도 선물이나 연예인을 동원해서 전도하려는 곳도 있다. 그러나 김 목사는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선물을 주거나 연예인을 동원하지 않는다.

천안장로교회 대각성전도집회는 토요일과 주일 두 번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100명이 넘는 영혼들이 결신하고 있었다. 대각성전도집회는 어떤 철학과 정신을 가지고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매년 있는 하나의 전도행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성도들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 소명 의식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다.

특별히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는 바로 전도와 선교의 열매다.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의 소명 의식이 깨어나야 하는 것이다. 김 목사는 대각성전도집회를 통해 성도들이 1년 동안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소명 의식을 깨우고 있다.

또한 김 목사는 “대각성전도집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의 한 해 동안의 영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한다. 천안장로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소명 의식을 깨우고, 대각성전도집회를 통해 끊임없이 소명 의식을 재확인시키며 영혼 구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제자훈련의 가장 큰 열매이며 동시에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의 장이라 생각된다.

강화된 다락방 모임

천안장로교회는 사랑의교회 소그룹과 같이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다락방이 19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 김 목사는 부임 이후 다락방을 강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부임 당시 다락방 모임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원로목사도 소그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후임목사를 바랬다고 한다. 김 목사 부임 당시 소그룹은 교제 위주로 진행되었고, 다락방 교제도 쉬운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 소그룹 교제가 쉽다 보니 순장들이 순장반에 잘 나오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순장반에 나오지 않아도 다락방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장반 진행도 매주 수요일 오전 예배를 드린 후에 30분 정도만 가졌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그룹이 약화되어 있었다. 이에 김 목사는 부임 이후 순장반을 강화시켰다.



순장반을 수요일 저녁예배 후로 옮겨 1시간 30분씩 진행했다. 현재 13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순장들은 적극적으로 김 목사의 생각을 잘 따라 왔다. 김 목사는 이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원로목사가 훈련을 잘 시켜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자훈련 목회로 기반이 잘 다져져 있었기에 변화도 쉽게 일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사랑의교회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순장들과 순원들이 만족해 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천안장로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교회가 있는 지역은 천안에서 구 도심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어 있고, 어려운 가정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생업 전선에 뛰어들고 방치된 아이들이 많다. 교회는 이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2008년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었고, 이제는 교회의 기관이 되어 이들을 섬기고 있다. 현재 초, 중, 고 아이들 40여명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단체들과 연계해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등을 섬기는 사역으로 지역사회 구제팀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제자훈련 목회를 담당하는 교회로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다.

행복한 제자훈련

김철수 목사는 천안장로교회 부임 이후, 제자훈련에 그 무엇보다 집중했다. 김목사가 부임할 당시 천안장로교회의 제자훈련은 외형적으로는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고, 큰 틀은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힘썼다.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여건 때문에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각각 6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1년

의 과정으로 바꿨다. 이런 부분에서 원로목사가 많은 힘이 되어 주었다. 처음에 제자훈련을 다시 1년 과정으로 바꾸려 할 때에 반대나 마찰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모두에게 더 큰 기대감이 생겼고, 담임목사와 훈련을 다시 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천안장로교회는 제자훈련 세 반과 사역훈련 두 반이 진행되고 있다. 제자훈련은 부교역자들이 하고, 사역훈련은 김 목사가 하고 있다. 제자훈련은 남자 25기, 여자 26기 그리고 사역훈련은 남자 23기, 여자 24기다.

김 목사는 제자훈련의 유익에 대해 “목회의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칫하면 목회자가 예배나 설교 중심으로만 갈 수 있는데,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성도들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성도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서 보람된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제자훈련 기간 구체적 섬김의 훈련을 위해 장에 시설을 방문하고 섬기도록 한다.

요즘은 더 나아가 다락방별로도 방문해서 섬기게 하고 있다. 김 목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은혜의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특히 귀납적 큐티에 대해 집중하고 있고, 매년 초 큐티 세미나를 열고 있다. 생활과제도 그 과의 주제나 말씀과 관련이 깊은 것들로 만들어서 사용하며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김 목사는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게 한다. 주차나 식당 봉사에 들어가 섬기게 한다. 훈련을 마치면 우선적으로 순장으로 배치하고, 후에 위원회 팀장이나 부팀장으로 배치하고 있다. 훈련 자체를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자와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게 만드는 열매를 맺고 있다.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말씀 사역에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되었고, 성도들이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가족이 되어 가는 행복한 열매를 맺고 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성도 ONE

2010년 김철수 목사에게 제자훈련(여자 23기)과 사역훈련(여자 22기)을 받은 윤선영 집사를 만났다. 윤 집사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오후 강사로 나가고 있다. 윤 집사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받고, 지금은 순장과 중보기도 부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윤 집사는 제자훈련뿐만 아니라 일대일 양육, 교사훈련, 큐티 세미나, 신구약 파노라마, 전도폭발훈련 등 중요한 훈련들을 받고 목양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다.

윤 집사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평일 오전 다락방을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다락방 모임을 마치면 바로 일터로 나가야 했다. 그러나 육신이 피곤하기보다 보람되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찬양을 드렸다.

윤 집사는 제자훈련을 받기 전 자녀들을 자신의 뜻대로 키우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했다. 경건의 생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훈련을 받기 전에는 경건의 습관들이 규칙적이지 못했는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경건 생활이 되었다.

그녀에게 제자훈련의 가장 큰 유익과 은혜는 귀납적 큐티였다. 그녀는 D형 큐티를 통해 많은 은혜와 삶의 변화를 체험했고, 생활과제를 통해서도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고백한다. 윤 집사는 제자훈련은 정말 영적인 자가 발전인 것 같다고 고백하며, 은혜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윤 집사는 “천안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라는 질문에 “천안장로교회는 훈련에 집중하고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라고 간단명료하게 말했다. 참 놀라운 일이었다. 김 목사가 말했던 것들이 윤 집사의 말 속에 모두 표현되었다.

윤집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행복한 성도가 되었다. 제자훈련을 할 때 김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D형 큐티와 생활과제를 통해 너무도 많은 은혜와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 그리고 윤 집사는 교회를 훈련과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윤선영 집사와의 대화를 통해 김철수 목사의 얘기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김철수 목사는
“제자훈련이란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 닮은 주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
라고 말했다.

행복한 성도 TWO

또 한 분의 행복한 성도를 만났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받고, 현재 순장과 중보기도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선미 집사다. 김 집사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된 것이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힘든 상황이 많았다. 훈련을 통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김 집사는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가 된 것이다.

김 집사가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된 것이 또 하나 있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되는 것을 보며, 김 집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이것은 제자훈련을 받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러면서 김 집사는 대각성전도집회를 통해 얻게 된 영혼 구원의 기쁨에 대해 말해주었다. 한 번은 열린 다락방을 통해 나온 분이 계셨는데, 교회에 대해 쉽게 믿지 못하는 분이었다고 한다. 자극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분이였기에 목사님의 설교도 쉽게 믿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힘들었고 다락방에서 섬기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분은 1년 동안 마음을 열지 않다가 김 집사와 다락방 순원들이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마음을 열고 교회와 다락방에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그분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정말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이 일은 김 집사에게는 남다른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예전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김 집사는 누구보다 복음을 심하게 거부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전도폭발을 통해 교회에 처음 나오기는 했지만 계속 거부반응이 있었고, 잘 믿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교통사고로 차는 폐차를 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김 집사는 교회를 다니게 되어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마음을 열고 믿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김 집사에게는 다락방에서 그분이 믿고 돌아온 것이 남다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 집사는 전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를 더욱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기쁨과 행복

을 제자훈련을 통해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더 행복한 목회를 꿈꾸며

김철수 목사는 옥한흠 목사님처럼 세부적인 것은 놓쳐도 방향성을 잃지 않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목회의 중요한 방향 즉 목회 철학과 본질을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김 목사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길 원했다. 이미 교회에서도 자체 워크숍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눠 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천안장로교회 부교역자 출신들 중에 8~9명 정도가 천안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들을 섬기고 있었다. 김 목사는 천안장로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김철수 목사는 “제자훈련이란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후련생들은 눈에 보이는 나를 본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닮은 주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 때,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신했다. 김철수 목사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기에 대화를 하는 내내 천안장로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류환석 목사>

